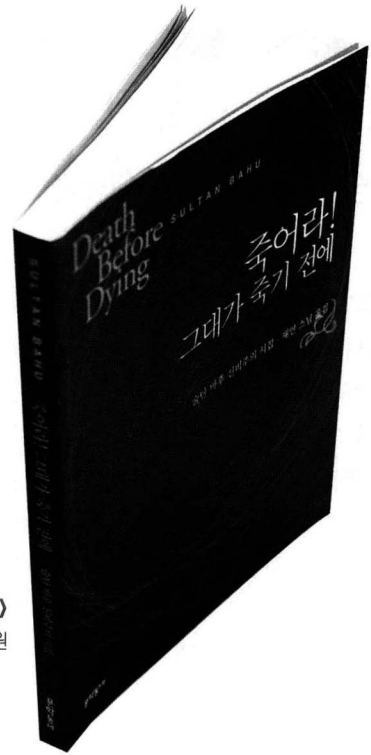


이슬람 신비주의 시집 《죽어라! 그대가 죽기 전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글 이주연 기자



《죽어라! 그대가 죽기 전에》

술탄 바후 지음 | 재연 옮김 | 문학동네 | 168쪽 | 값 5,000원

절대자를 향한 사랑이 절실하고 숭고한 것은 모든 이들이 우러르는 '유일성'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한없는 갈급과 집착을 부려놓는 것은 범속한 이들을 아우르는 '보편성' 때문이다. 서로 이질적인 두 속성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절대자에게 다가가는 '길'을 연다. 이 '길'에서 탄생하는 것들이 신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이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속성 때문이다.

문학도 다르지 않다. 절대자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문학 작품은 국경과 언어, 시대를 막론하고 널리 암송되고 읽힐 만큼 탁월한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것들이 많다. 특히 절대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순결을 맹세한 수행자들이 남긴 시들은 웬만한 연애시를 뛰어넘는 농밀하고 정열적인 감정을 노래한다.

“사랑은 내가 약한 것을 알고는 와락 쳐들어왔지/ 눈길 가는 곳 어디라도 사랑이었어, 빈자리가 없었어”(97쪽)

세계 문학에서 이슬람 신비주의(Sufism)과 시의 만남은 종교의 교훈과 체험을 매혹적이고 아름답게 전달한 성공한 '문학'으로 손꼽힌다. 당시 대중들은 직설적이고 감각적으로 신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수피 시에 열렬히 환호했다.

술탄 바후 (Sultan Bahu, ?~1691)는 고향인 편잡 지역의 말로 수피즘의 정신을 노래해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시인이다. 《죽어라! 그대가 죽기 전에》는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술탄 바후의 시를 모은 것으로, 신과의 개인적 합일을 추구하는 수피즘의 특성을 보여주는 100여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나 못생겼는데 그이는 아름다운 분 - 나 어찌 그분의 성에 찰까? / 온갖 피를 다 부려도 그분은 문간에도 들어서지 않아 / 예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찌 내 님 기쁘게 하나? / 이 아픔 끝내 남으리, 바후, 나 눈물 속에서 죽으리”(109쪽)

술탄 바후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직설적인 표현으로 신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신성(神性)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수피즘 최후의 목표이므로 그는 '죽기 전의 죽음', 즉 육체의 죽음을 이전에 물질세계에 대한 정신의 집착을 끊어버리는 정신의 죽음을 추구한다. '여보게 바후, 죽기 전에 죽세, 그제사 그분께 이른다네' (19쪽)라는 시구는 그런 정신의 발로이다.

따라서 그의 시는, 무지하다해도 신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정신의 죽음을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신과의 합일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강렬하고 함축적인 그의 시어는 이슬람 수피즘의 비법과 철학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대중을 사로잡았고, 만트라처럼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모두들 굳은 신심을 요구하면서 굳은 사랑은 말하지 않아 / 신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부끄럽게 알지, 오만하기는! / 신앙은 사랑이 그대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지 못해 / 신심을 걸고 맹세하지, 바후, 나 굳은 사랑을 지키겠네”(28쪽)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나의 욕망을 낮추고 지우는 일에 다름 아니다. 이 사랑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지 못해' 도 이성의 논리로는 멈출 수 없다. 절대자를 향한 사랑도, 연인을 향한 사랑도 지극한 지점에 이르면 서로 닮아있다. 수피즘의 참모습을 사랑을 통해 노래한 술탄 바후의 시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그래서가 아닐까. **한문**